

지역 소식통

정읍시, 단이 종이 활용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정읍시가 시 대표 캐릭터인 단이와 종이를 활용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과 상춘객의 안전을 위해 '2020 정읍 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했음에도 벚꽃 만개 시기에 상춘객 방문이 예상된다. 이에 시는 단이 종이를 활용해 시 대표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벚꽃축제 취소 안내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전국 상춘객 대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당부에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벚꽃로 일원 촬영 영상을 SNS에 게재하며 이반만큼은 벚꽃로 일원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즐길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주간 현황과 국민 행동지침 등 다양한 정보를 시 대표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과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산물 가격안정 추진

부안군 지원사업 신청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기후 변화 및 품목 집중 등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지원해주거나 또는 출하예정 농업인 중 시장가격을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확진자 가족 '음성'

캐나다서 입국한 20대 여성, 해외입국 검역소 환자 분류 격리시설 부족 탓 자차로 자택이동 후 자가격리 등 준수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31일 군청 대강당에서 긴급 언론 브리핑을 갖고 캐나다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 A씨(21·여성·부안읍)의 접촉자인 가족(부모) 2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부안군 부안읍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워킹홀리데이로 캐나다에 머물던 중 지난 29일부터 기침과 콧물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29일 저녁 인천공항 입국 시 유증상자로 분류돼 인천공항검역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았습니다. 검사 후 검역소에서 격리 시설 부족에 따라 자차로 이동할 경우 자가로 귀가할 수 있도록 허가하자 부모와 함께 부안 자택으로 이동해 자가 격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지난 30일 오후 3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부안군보건소는 코로나19 확진자 통보를 받은 즉시 level-D(신발까지 다 덮는 전신보호복)

보호복을 착용하고 구급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확진자를 군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해외입국 검역소 환자로 분류됨에 따라 부안군 확진자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권익현 부안군수도 해외유입 확진자 발생상황을 보고 받고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찾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A씨와 가족은 인천공항검역소에서 검사 후 부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휴게소 등을 들리지 않았으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등은 유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만큼 부안에 도착한 후에도 자가격리 등을 철저히 준수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A씨 가족(부모)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할머니 등은 자가 격리 매뉴얼에 따라 앞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가 실시하며 군 보건소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및 유선연락을 통해 하루 2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자가격리자를 위해 자가관리 키트를 제공하고 각종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다. 또 A씨의 자택 및 마을 전체에 대한 방역소독을 31일 오전 중 실시했으며 마을주민들에게 마스크 및 소독제를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자가격리 장소에서 배출된 폐기물 역시 소독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할 방침이다.

권익현 군수는 "코로나19는 분명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라며 "우리 모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4월 1일부터는 모든 전북 지역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전북도인재개발원(남원)에 자가격리를 실시해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직자 교통분담 앞장

자발적 급여 일부성금 기탁

정읍시 유진섭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 교통 분담을 위해 이달부터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유 시장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쏟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에 함께해달라"며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것이다.

이에 임민영 부시장 포함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8명은 자발적으로 급여의 일부인 20~100만 원을 반납해 31일 1510만 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며 교통 분담에 동참했다.

임민영 부시장이 100만 원, 4급 국소장 공무원은 30만 원, 5급 실과소, 읍면동장이 20만 원씩 기탁에 앞장섰다. 또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율 모금을 진행 중으로 모인 성금을 오는 2일 기탁할 예정이다.

한편, 정읍시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구내식당 월 2회 휴무에서 주 1회 휴무에 동의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황토배기유통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을 통해 그간 침체돼 있던 농산물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고창황토배기유통, 농산물 유통사업 재가동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이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협력을 통해 그간 침체돼 있던 농산물 유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주)고창황토배기유통은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중소 농업인의 통합마케팅 출하시스템을 구축해 통합마케팅을 확대한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농산물 유통사업의 취급물량 규모를 늘리고, 공동사업을 통해 유통 시설장비 가동율을 높

여 흑자경영으로 전환해 나간다. 또 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견고추 장터를 개설해 고추 생산농가의 직거래 판매 활성화를 이끌어 농가 소득을 높여갈 계획이다.

조성된 장터공간을 활용한 중·소규모의 농산물 관련 행사도 집약적 추진된다.

앞서 고창군은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총 13개 사업 24억35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와 고창군 관내 6개 지역 농축협(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대성농협, 흥덕농협, 고창부안축협) 조합장들이 고창군청을 방문해 저소득층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코로나 함께 극복하자" 성금 잇따라

고창군 관내 농축협 등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고창군 관내 농축협들이 힘을 모았다.

지난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지부장 진기영)와 고창군 관내 6개 지역 농축협(고창농협, 선운산농협, 해리농협, 대성농협, 흥덕농협, 고창부안축협)조합장들이 고창군청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성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

진기영 지부장과 6개 지역 농축협조합장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협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과 봉사활동에 적극 동참 하겠

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직원일동이 100만 원을, 무장면 애향회(회장 김광안) 회원들이 고구마말랭이 1000봉지를, 공무원 동아리(발로 읽는 역사문화탐방)가 100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고창군청 도로보수원(반장 조성훈)들이 30만 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고 싶다며 성금(품)을 고창군에 기탁했다.

이에 더해 고창군청 공무원직 노조가 264만원 상당의 석정온천 목욕티켓을 구입하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탤다. 기탁된 성금(품)은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처리 후, 고창군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조금이나마 돕고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방치된 관정' 찾는다

지하수 주요 오염원...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 병행 추진

정읍시가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청정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방치된 관정) 찾기 운동'을 연중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정 이용상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개발돼 제도권 내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여러 원인으로 사용이 중지된 관정이 원상복구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가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 방치공의 신고·폐공 처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며 연중 방치공 찾기 운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발견한 방치공은 지하수 방치공 상실신고센터인 시청 건설과(☎063-539-5842)나 해당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방치공'이란 관정개발 실패나 사용

종료 후 적절하게 폐쇄되지거나 자연 매몰되지 않은 채 관리대상에서 누락·방치돼 지하수 오염의 주요인으로 우려되는 시설물이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설치된 관이 부식되거나 오염된 지표수·농약의 침투로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오염수의 정화작용 없이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의 주요 오염원이 될 수 있다. 시는 신고된 방치공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 급수정과 관정정으로 재활용하거나 원상복구사업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방치공은 지하수 오염의 주원인이지만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에 지하수 개발·이용자와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광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